

여명기 전자머니, 실험 통한 가능성 추구단계 '화폐의 무정부시대' 시나리오까지 등장

금융과 상거래가 날로 복잡해지는 한편으로 전자상거래(EC) 등의 정보기술에 의한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지면서 화폐보다 편리한 수불(受拂) 수단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결제수단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머니가 다양하게 실험되고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다음은 전자머니

“전자머니”, 한 1년전만 해도 거의 듣지 못했던 낱말이나 지금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금융과 정보화의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다음은 전자머니’라 할 정도로 주요 이슈로 떠올라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도마련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일부는 서비스되고 있다.

금융과 상거래가 날로 복잡해지는 한편으로 전자상거래(EC) 등의 정보기술에 의한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지면서 화폐보다 편리한 수불(受拂) 수단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결제수단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머니가 다양하게 실험되고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인터넷 붐과 무관치 않은데, 네트워크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형의 전자머니가 구상되면서 전통적인 은행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차 ‘화폐의 무정부론’까지 등장하고 있어 전자화폐는 결제수단의 편리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진단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10년내 은행지점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지점의 업무

중 인출등 거래업무 대부분은 PC뱅킹이나 ATM이 대행하게 되고, 자금운영 등 상담업무만으로 특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Non-Bank위협론’ 때문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촉각을 매우 곤두 세우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은행들이 나서서 IC카드 등을 개발하는 외에 인터넷상에서 각국의 화폐를 환전할 수 있는 ‘가상외환시장’을 창설, 전자머니를 유럽전역에 유통시킬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내년까지 전자머니 관련 법률의 정비를 끝내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으며, 은행들은 전자머니 도입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의 관련업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자국의 금융제도를 대비, 분석중이다.

우리나라도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금융정보화추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은행과 공동으로 전자화폐 표준안 제작에 착수했다.

세계적으로 전자머니에 대한 대체적인 동향은 크레디트카드계와 은행계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업체가 가세, 열기가 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전자머니 서비스의 국제화는 향후 막대한 비즈니스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카드회사 VISA인터내셔널은 자체 통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크레디트카드계의 전자머니 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크레디트카드 회사가

열심인 것은 신용카드 방식이 전자결제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PC/OS마켓의 80%를 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VISA와 협력외에 자사 가계부 소프트웨어인 “머니”를 이용, PC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고 전자지갑(PCWallet)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전 PC뱅킹을 위해 인튜잇이라는 가계부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수하려 했다. 인튜잇의 가계부 소프트웨어 “퀵켄”은 관련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그분야 유수의 업체이다. PC뱅킹 서비스에는 가계부 소프트웨어가 필수로써 “퀵켄”은 예금잔고 확인이나 당좌예금과 보통예금간의 자동이체를 하는 기능이 있으며, 곧 지불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튜잇의 매수는 시도는 미국 법무부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는 판정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은행들을 몹시 초조하게 만들면서 은행들로 하여금 자구책으로 PC뱅킹 도입에 불을 당기게 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이것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자머니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고조된 주원인이었다.

자극을 받은 은행들은 적극 대응에 나서 미국내 대규모 은행 58개중 이미 46개 은행이 PC뱅킹을 제공하고 있거나 개발중에 있다 한다.

유럽에서는 은행계에서 화폐를 주로 IC카드형으로 전자화(전자지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유럽이 통화가 다종이고 유럽연합(EU)이 역내 통화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IC카드 보급에 앞서 있어 이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0종류에 이르는 전자머니가 존재한다고 한다. 앞으로 그 수가 더 다양해질 것은 추세로 보아 자명한 사실이다.

전자머니의 출현은 사용자들에겐 더할 수 없는 편이성을 가져오겠지만 극단적으로는 ‘무정부 화폐’까지 등장, 현재 화폐의 국가 근본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뒤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전자머니 발전의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머니도 화폐인 이상 가치보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갖고 예금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창조의 순환으로 화폐의 총량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팽창해 가고, 달러나 엔화, 원화가 아닌 아닌 새로운 허구의 ‘머니’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전자머니 자산을 운용하는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이 탄생하고, 이는 국경없는 세계에서 거래가 일어나 통화량 조정자인 중앙은행의 기능도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 ‘무정부화폐’ 등장의 시나리오이다.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가상’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전자화폐가 화폐의 무정부 상태까지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가공할만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같이 된다면 ‘국경없는 시대’의 영향은 인터넷의 그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머니는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전자카드나 전자뱅킹의 암호와 인증번호를 분실하거나 빼앗길 경우 예금주의 예금 전액을 인출당할 가능성이 있고,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져 금융정책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해외로의 자금흐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그것이다.

즉 자체적인 안전성과 통화관리의 어려움, 기존 통화체제의 무력화가 반작용의 효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전자머니 ‘바람’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뒤받침되지 않은채 휩쓸리는 듯한 분위기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전자머니에 대한 규제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명기인 만큼 지금은 실험을 통한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전자머니는 시대적 흐름의 대세이고 그를 둘러싼 부정적인 면들은 장차 극복해 나가야 할 숙제거리라는 것이다. 전자머니의 추진방향과 장애물은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하간 21세기에는 일상생활속에 현금아닌 전자정보를 화폐로 사용하는 시대가 정착되어 정보 시대의 또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표〉 대표적인 전자머니의 종류와 기능

타		명	기
요		칭	능
		(사업주체등)	
크 레 디 트 형	네 트 워 크 형	Cyber Cash	PC에 내장된 전용 소프트웨어가 미리 카드번호를 기억, 암호화된 카드정보는 Cyber Cash의 중개로 네트워크상에서 결제에 이용
	사 전 등 록 형	First Virtual	일종의 회원등록과 같이 카드정보를 사전등록, 전용회원번호로 네트워크상에서 결제
전 자 수 표		FSTC	PC카드에 내장된 전자수표장과 전자서명방식을 이용한 네트워크상의 수표·시행증
머 니 형	네 트 워 크 형	eCASH (DigiCASH)	네트워크상에 가상의 '코인'을 생성하여 이를 결제에 이용. 마크투웨인 은행이 실험중.
		Net Bill	네트워크상의 소비자와 판매자의 구좌를 설정하여 POS처럼 이체함.
	카 드 형	Mondex	IC카드상에 현금가치를 이전하는 잔고 보충 가능한 선불형 전자지갑. 제3자에게 가치이전가능
		Proton (뱅크시즈)	선불형이나 제3자에게 가치이전을 할 수 없음

전자머니는 세종류

전자머니는 쉽게 말하면 통화(通貨)를 전자정보로 바꾸어 결제에 쓰자는 것이다. 이는 크게 “크레디트형” “전자 소액수표” “머니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참고〉.

“크레디트 형”은 크레디트카드를 네트워크상의 결제에 쓰는 타입이다.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암호기술을 사용하여 전자결제사업회사에 보내고, 이는 다시 결제회사에서 은행으로 정보가 보내져 대금이 인출되는 방식이다.

“전자 수표”는 수표가 전자적으로 PC카드에 들어 있는 형태이며, 지불인이나 수취인과 은행간의 전자수표 수불은 전자메일을 이용하고, 전자수표에 대한 서명이나 이서는 암호기술의 응용인 전자서명을 이용

한다.

“머니 형”은 두가지로서 하나는 네트워크상에 가상의 돈을 생성하는 타입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의 예금구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현금의 가치를 현실의 예금으로부터 IC카드 등으로 옮겨놓고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지갑”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집에서는 자신의 PC를 통해 쓰고, 외출시에는 전자지갑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소비자가 대상이 아닌 기업간의 전자상거래(EC)는 기업간의 대규모 결제에 시큐리티 신용도가 낮은 인터넷을 쓸 수 없어서 그 미래상이 아직은 뚜렷이 그려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전자화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❷